병오년 백중49일 특별기도 안내

신도님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속리산 大법주사에서는 다가오는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백중)을 맞이하여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조상천도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란분절은 목련존자가 안거수행을 마친
스님들의 법력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던 어머니를 구해낸 효심에서 비롯된 불교의 5대 명절입니다.
일 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리는 날을 맞아 부처님의 법력과 스님들의 수행공덕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망조상, 태중영가 및 유주무주 고혼영가들을 천도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신도님들께서는 이번 백중기도에 빠짐없이 동참하시어 선근공덕을 쌓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며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49재 일정

3재 : 7월 30일 목요일 〈법문: 석담스님〉
4재 : 8월 6일 목요일 〈법문: 원경스님〉
5재 : 8월 13일 목요일 〈법문: 노현스님〉
6재 : 8월 20일 목요일 〈법문: 현진스님〉
회향 : 8월 27일 목요일 〈법문: 주지스님〉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위패비 **2**만원 / 영가기도비 **3**만원
(도량에 백중기간 중 연화백등을 밝혀드립니다.)

※ **불보살님과 영가님을 위해 각 재일(재를 지내는날)마다 정성껏 공양(떡,과일,공양미) 올리실 분 설판동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안내** : 大법주사 원주실 043) 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무착無着 문희文喜 선사 (2)



〈지난호에 이어서〉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面上無瞋供養具)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口裡無瞋吐妙香)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心裡無瞋是眞寶)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無染無垢是眞常)

이렇게 문수보살을 친견하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무착은 더욱 수행에 힘써 앙산 선사(仰山 ; 840~916)의 법法을 이어받아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인이 되었다.

어느 해 겨울, 동짓날이 되어 팥죽을 쑤다가 솥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무럭무럭 나는 죽 속에서 문수보살이 장엄하게 나타났다. "무착은 그동안 무고한가?" 하며 옛날 오대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시키며 먼저 인사말을 건넸다. 그런데 무착 스님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팥죽을 젓던 주걱을 들어 문수보살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 갈기는 것이었다. 문수보살은 놀래어 "어이, 무착. 내가 바로 자네가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하던 문수일세 문수야!"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받은 무착 스님은 "문수는 문수요 무착은 무착이다. 만일 문수가 아니라 석가나 미륵이 나타날지라도 내 주걱 맛을 보여주리라."

무착자무착無着自無着 이요　문수자문수文殊自文殊 라
필경무내외畢竟無內外 인데　여하현죽상如何現粥上 고
무착은 무착일 뿐이요 문수는 문수일 따름인데
안과 밖이 다르지 않거늘 왜 죽 위에 얼굴을 나타내는고
하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게송을 읊었다.
고과연근고苦瓜連根苦 요　감과철체감甘瓜徹甘 이라
수행삼기겁修行三祇劫하야　각피노승혐却被老僧嫌 이로구나
쓴 오이는 뿌리까지 쓰고 단 오이는 꼭지까지 달구나
삼아승기겁을 수행해서 오늘에야 노승의 꾸지람을 들어보도다
하는 말을 마치고 문수보살은 슬며시 사라져 버렸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8 | 통권 415호



2 **벽화이야기** 무착 문희 선사 (2)
4 **이달의 법문**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 은하수를 건너는 마음 大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무상無常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합시다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여름꽃이 피었네 현진 스님
10 **경전구절산책** 제사와 천도, 무엇이 다른가 원경 스님
13 **인도 건축미술 순례** 부처님 최후의 여정 안필섭
16 **칠월칠석 기도안내**
17 **수능100일 특별기도 안내**
18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19 **나한도량 성지순례안내 / 大법주사 행사일정**
20 **大법주사 소식**
21 **광명진언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미륵재일기도 / 지장재일기도 / 생일불공**
22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안내**
23 **승려복지 후원 안내**
24 **병오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8월호 통권 415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보은 라 00002)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정덕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大법주사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석, 은하수를 건너는 마음

지명대종사 大법주사 조실



속리산 깊은 골짜기에 여름 기운이 가득하고,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 청청합니다.
음력 칠월 칠일은 예로부터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를 건너 만난다는 칠석날입니다.
세간 사람들은 이날을 애틋한 사랑의 날로 기억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칠석은 단순한 만남의 명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갈라진 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번뇌에 가려진 채 살아갑니다.
본래의 나와 현실의 내가 서로 멀리 떨어져 만나지 못하니, 그것이 곧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일 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태우는 견우와 직녀의 처지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그 넓고 광대한 은하수를 건너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게 이어주는 다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칠석 기도를 올리는 불자님들은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발원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수명과 장수를 관장하는 치성광여래와 칠성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는 아름다운 발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본질을 바로 보는 일이겠지요.
우리는 끝없는 욕심과 성냄으로 괴로워하고, 분노하며, 빛을 등지고 어둠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三毒心때문입니다.
이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불태우고 있으니, 본질과는 자꾸만 멀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내 마음의 삼독심을 다스리고 끊어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일어나면 베풂을 생각하고, 성냄이 치성할 때는 자비로써 번뇌의 불을 꺼야 하며, 어리석은 망상을
지혜의 눈으로 통찰해 과감하게 타파할 때, 우리는 삼독의 노예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얻게 됩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 마음에 맺힌 원결을 푸는 것입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원망이 깊고, 사랑하는 이들 사이에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내 욕심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내 기준에 맞추어 타인을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칠석날 까마귀와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오작교를 놓듯,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돌려 자비의 다리를 놓고,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혀 인욕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내가 먼저 하심할 때, 비로소 막혔던 인연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지 않으니, 오늘 마주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이
바로 그 다리가 아닐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연기법에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고 설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도반들은 수많은 생을 거치며 맺어진 소중한 선연들입니다.
그 인연을 허투루 쓰지 말고, 서로서로가 오작교가 되어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어두운 밤하늘을 밝혀 가듯이,
우리 불자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보살행을 실천하며 세상을 밝혀 가야 하겠습니다.
한 번의 지극한 절과 염불이 내 마음의 은하수를 건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칠석을 맞아 大법주사 도량을 찾는 모든 불자님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길 발원합니다.
바라는 기도에서 나아가 실천하는 서원을 세우고, 미움이 없는 청정한 본성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부처님은, 은하수 푸른 물결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마음의 다리를 건너 본래 청정한 자성과 계합할 때, 매일이 기쁜 만남이요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은하수 빛이 찬란한 여름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에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상無常을 깨닫고 자비를 실천합시다

정덕 스님 大법주사 주지

불교의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연기緣起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나와 너, 인간과 자연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 또한 그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라고 하는 시대의 한 흐름을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장마가 오래 이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계절은 바뀌고 가을은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로 자연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연기緣起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나와 너, 인간과 자연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 또한 그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며,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8월은 백중기도를 원만히 회향하는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백중기도는 선망부모와 조상은 물론, 일체중생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자비의 수행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세상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자비의 씨앗이 되어 가정에는 화목을, 사회에는 화합을,
자연에는 생명의 기운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당에서의 정성이 일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향기로운
불자佛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 기간에는 특별히 언행을 삼가시어
낚시를 비롯한 살생을 금하시고, 부정한 일은 멀리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회향하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 정진하시고,
그 공덕을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어진 여름도 결국에는 지나가듯,
우리의 번뇌도 지혜와 수행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과 연기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며,
자비의 실천으로 백중기도를 회향하는 8월이 되시기를 발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여름꽃이 피었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한창 더울 때 꽃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녹음 사이로 여기저기 여름꽃이 피어 있어서 여름 풍경이 지루하지 않다. 봄꽃과 견주면 그 종류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내 정원에서는 충분한 위로가 되고 있다. 이즈음의 방문자들이 우리 정원의 꽃이 드물다 하였으나 눈여겨보면 '나 여기 있어요'하며 손을 드는 친구들이 많다.

아무래도 지금은 배롱나무가 제 몫을 하는 중이다. 이곳저곳에 심어 놓았는데 이제야 자리를 잡아 나이를 먹어가는 중이다. 저 아래 잔디밭에 여러 가닥으로 수형을 뽐내고 있는 배롱나무는 여기로 옮겨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올해는 꽃이 더 진한 색으로 피었다. 사찰이나 서원의 오래된 고목 배롱나무는 그 터의 역사며 세월을 증명한다. 그만큼 더디게 자라는 수종이다.

그리고 어떤 꽃이 있더라? 하나하나 나열해보자. 부용화, 무궁화, 부처꽃, 백일홍, 벌개미취가 있고 채송화, 초화화, 나리꽃과 도라지꽃도 하늘하늘 피었다. 저쪽 비닐하우스 주변엔 버들마편초가 무리 지어 피고 진다. 그곳에 매년 씨가 떨어져 그 일대가 어느새 버들마편초 군락이 되었다. 그 옆에 심어 둔 난타나 꽃이 곧 그 향기를 발산할 것이다. 이래서 무더운 날일지라도 이런 꽃들이 있어서 심심하거나 나른하지 않다. 꽃의 언어는 향기이고 꽃의 얼굴은 색감이다. 무심코 걷다가도 향기에 발걸음 멈추고 그 색감에 눈길이 가는 것이다. 만약 향기와 빛깔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일. 그래서 꽃들은 향기와 색깔로 날마다 말을 걸어오고 얼굴을 보여주며 안부를 전하는 것이다.

며칠 전에 새 식구로 맞이했던 범부채도 꽃이 피었다. 이렇게 잔잔한 종류의 꽃은 모여 있어야 아름답다. 나의 취향은 얼굴 큰 꽃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해바라기나 다알리아, 백합 등 얼굴이 넓적하면 정감이 덜 가더라. 어제 이웃의 지인에게 부용화 꽃을 분양해준다 했더니 "저는 얼큰 꽃 안 좋아해요"라고 하여 공감하며 웃었더랬다. 그의 정원에는 그야말로 수줍게 피는 아담한 꽃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또한 맨드라미 종류도 도통 정이 안 가서 잘 심지 않는데 우리 정원 뜰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마 누가 몰래 씨를 뿌린 것으로 짐작되나 나의 취향을 모르고 그랬지 싶다. 그러나 그 마음씨가 고마워서 올해는 곁에 두고 볼 생각이다. 나 같은 취향을 고려하여 얼굴 작은 맨드라미 품종도 많더라. 여기 부용화도 얼굴이 큰 편인데 내 나름의 방법을 쓰고 있다. 부용화 꽃대를 두어 번 정도 잘라 주면 키를 작게 만들 수 있고 얼굴도 좀 작아진다. 그러면 키도 적당하여 잘 쓰러지지 않고 얼굴 무게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도 없다.





올여름은 아직 목수국이 왕성하게 피지 않아 정원이 텅 빈 느낌이다. 그러나 가을 축제를 위해 잠시 개화 시기를 조절해주었을 뿐 아주 망친 건 아니다. 몇 해 경험해보니 한여름에 꽃을 피우니까 폭염에 시들거나 장맛비에 꽃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꽃구경하자고 무더운 날 정원에 나갈 엄두도 나질 않아서 차라리 그 시기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

그래서 지난 6월 초에 목수국 꽃대를 일제히 잘라주었더니 때가 되었는데도 목수국 정원에 꽃이 없는 것이다. 목수국 또한 얼굴이 커서 고개가 쳐지는데 가지치기를 해주면 세 가닥으로 분화하기 때문에 얼굴이 다소곳하게 작아질 수 있다. 지금은 다소 밋밋하여도 아마 초가을이면 풍성하게 그 얼굴을 보여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손길 하나하나가 스며들어야 정원 표정이 다양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목수국꽃이 없는 시기에 애나벨 수국이 한창 피어 그 공간을 대신해주었다. 어제는 반쯤 말라버린 꽃을 잘라 주는 작업을 했다. 지금 꽃을 과감히 잘라내면 가을에 한번 더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날 무더위에 물러앉아 있으면 가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

어제 백白선생과 대화하다가 '행복은 강도나 빈도가 아니라 온도다.'라는 주제에 동의했다. 사람과 사람과의 온도, 지구와 대지와의 온도, 기후와 생태와의 온도 등 그 온도가 적당해야 기분이 좋아지고 불편하지도 않다. 그래서 성격이든, 취미든 그 대상과의 온도는 중요한 것이다. 만약 온도가 어긋난다고 생각해보라. 매사 짜증이고 투덜대지 않을까.

올해는 예년보다 능소화가 일찍 피고 졌고, 은행나무 아래의 메리골드는 이제 피기 시작했다. 칸나는 알뿌리 관리를 제때 하지 않았더니 다 얼어 죽었는지 꽃대도 없다. 이렇게 서로서로 온도가 일치해야 뭐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다. 결국 존재들은 온도의 연기법칙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행복의 온도는 얼마나 될지 생각해볼 일이다.

제사와 천도, 무엇이 다른가

원경스님 大법주사 강주



오늘날 인도의 문화를 이룩한 것은 아리안족이다.
그들은 B.C. 1,500년경 코카서스 유목민으로
서북인도 인더스강에 침입하여 베다의 본집을
형성하고 차츰 농경사회로 정착하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사제司祭로서 브라만이 되고
사성계급을 만들어 사회를 지배하였다.
사제는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제사의 교학을
독점하였다. 브라만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신에게 올리는 의궤를 수행하며 주술을 행하는
제사의식은 오직 사제만 할 수 있었다.
성직자로서 브라만들은 인간 상호간의 행위 규범이나
윤리 의식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신들에 대한
제사의식에만 몰두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이든 오직 브라만을 통해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브라만은 유일하게 베다를 볼 수 있고 제식을
집전할 수 있기에 다른 계급들에 비해 우월하다고
여겼다.
B.C.6~5세기 인도는 사상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격변기에 속한다. 인도 사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브라만에 대한 권위가 약해지고
수많은 새로운 사상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장아함경』「사문과경」에는 6사외도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외도外道란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는
부류[心外求道]를 일컫는 말이다.
석존은 당시 인도의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정각을 이루고 중도적 연기설로 모든 사상을
극복하고 불교를 형성하게 된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번뇌로부터 해탈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기존 브라만들이
제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관습에 대해
『상응부 경전』 42:6「서지인」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석존께서 나란다의 파바리캄바라는 숲 속에
머물렀던 때의 일이다. 이웃 마을의 촌장인
안반다카푸타가 석존을 찾아와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브라만들은 물병을 높이 치켜들거나
화환을 바치며, 물에 들어가 목욕하거나 신에게
공양을 드리거나 함으로써, 죽은 사람을 천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덕께서도 역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석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깊은 호수에 돌멩이를 던졌다고 하자.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멩이야 떠올라라.
돌멩이야 떠올라라.'고 하며 기도했다고 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 돌멩이는 기도의 힘으로
떠오르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촌장이여! 여기에 남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따위의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이 사람이 천상에 태어나게 해주소서.'하며
기도했다면 그는 그 기도에 의해 천상 세계에
태어나게 되겠는가?"

이와 같은 내용이
『중아함경』「가미니경伽彌尼經」에 똑같이 등장한다.

"그렇다, 그가 천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나쁜 업은
검은 것[惡業]이어서, 그 갚음으로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묘한 법을
실행하고 온갖 착한 업을 닦는다고 하자.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당신은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묘한 법을 실행하여
온갖 착한 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인연으로 목숨이 다한 뒤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저주했다면 그가 과연
그들의 저주대로 지옥에 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착한 업은 흰 것[善業]이어서,
그 갚음으로 저절로 위로 올라가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름병을 깨뜨려
연못에 던지면 부서진 병조각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같이 목숨이 다한 육신은 흩어져 까마귀와
새가 쪼아 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거나 혹은 태우거나
땅에 묻히어 마침내는 흙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업식業識만은 항상 믿음과 정진과 보시와
지혜에 싸여 저절로 위로 올라가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다."

석존 당시 출가인은 자력自力으로 수행하여
윤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재가불자들은 보시와 지계를 실천하여
천상세계에 태어나는[生天] 것이 목표였다.
석존이 재가불자들에게 법문 할 때
'보시 지계 생천'이라는 정형구가 수없이 등장한다.
재가인들은 스스로 교단에 보시하고 계율을
잘 지킨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석존 당시 교단에서
재가불자들에게 제사를 행하는 일은 없었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타력신앙이 생겨나면서
사후 제사를 통한 극락왕생이라는 불교의례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가미니경」에서 힌트를 얻어 다음과 같은
발상의 전환이 생겨난다.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 놓고
제아무리 '돌멩이여 떠올라라'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돌멩이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돌멩이보다
큰 바위를 배에 싣고 가면 바위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을 건널 수 있다. 돌멩이나 바위란 개인의
업장을 비유한 것이고, 배[舟]란 제사를 통한
중생구제와 같은 타력신앙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인 타력他力에
의지하여 생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브라만교에서 제사를 통해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이곳은 윤회의 세계이다.
천도薦度란 추천하여 제도한다는 의미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기원한다. 극락세계는 삼계의
윤회계를 벗어난 곳이다.
우란분절이 생겨나게 된 연유를 보면 신통제일인
목련존자조차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어 아귀도에
떨어진 것을 구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안거가
끝나는 날 안거를 마치는 비구대중에게 보시하고
그 대중의 수행력을 빌어 모친을 천도할 수 있었다.
이것은 후손이 청정한 수행을 마친 대중에게
추선공양追善供養한 공덕으로 영가를
천도한 것이기 때문에 타력에 의한 영가의
구제라고 할 수 있다. 브라만교에서는 누구든
제사만 지내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교에서 천도재는 추선공양을 통해
공덕을 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후손인 추천인이 얼마나 공덕을 쌓고
정성을 들이는가가 천도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 최후의 여정

안필섭 보살사 불학연구원장

오늘은 치트완에서 출발해 소나울리(Sonauli) 국경을 통과하고, 고락뿌르(Gorakhpur)를 거쳐 꾸쉬나가르(Kushinagar)까지 약 300km의 여정이다. 사실 계획 당시는 치트완을 갈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고락뿌르를 이용해 룸비니를 다녀올 생각이었지만, 계획이 변경되면서 고락뿌르는 머물 예정이 없어져 숙소를 취소했다. 마침 꾸쉬나가르를 가는 길에 고락뿌르는 통과했는데, 며칠 동안 슈라와스띠(Śravastī)와 네팔의 한적한 시골에만 있어서인지, 그리 큰 도시가 아닌 고락뿌르만 해도 북적거리는 도시의 느낌에 촌놈처럼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차는 고락뿌르 시내에 있는 람가따알(Ramgarh Taal)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수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내를 통과하자 시간이 꽤나 흘러 어두워졌고, 꾸쉬나가르 시내 변두리에 있는 성지 순례객을 위한 작은 호텔에 방을 예약했다. 라주는 알아서 밤을 보낸다고 한다. 늦은 밤이지만 주변에 식사할 곳이 마땅찮아서 오믈렛을 객실로 주문해 네팔에서 가져온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해결했다.

다음날 아침 7시. 전날 약속한 라즈가 제시간에 차를 준비했다. 첫 방문지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꾸쉬나가르의 빠리니르와나 스뚜빠(Parinirvana Stupa)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거의 사람들이 없다. 좀 부지런한 상인들 몇 명이 과일과 불상에 덮을 금빛 천 같은 것을 팔고 있을 뿐이었다. 경내는 역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지만 옛 성지의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80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불교의 4대 성지 중 한 곳으로, 두 그루의 사라수 사이에 마지막 유훈을 남기시고 열반에 드신 자리이다.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한 이후 잊혔다가 1876년 알렉산더 커닝엄(Alexander Cunningham)과 칼라일(A. C. L. Carlleyle)이 5세기 굽타 왕조 시대의 동제 사리용기와 동판 명문을 발견하면서 부처님의 열반 장소임이 입증되었다. 현재의 사원은 복발형의 스투파 앞에 식빵을 연상시키는 하얀 건물이 서 있는데, 1927년 미얀마 불교도들의 후원과 인도 정부의 복원 사업을 통해 재건되었다.

사원 내부에는 길이 약 6m의 열반상이 모셔져 있는데,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계신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불상이 누워 있는 좌대 옆면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깊은 시름에 잠긴 모습,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 고요히 앉아 면벽하는 모습 등 스승의 죽음에 대처하는 다양한 마음 상태로 묘사되어 있다. 사실 난 부처님의 거룩함보다는 이런 중생의 모습에 더 마음이 쓰인다. 스승의 열반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전과 동일해야 하나? 이전과는 달라져야 하나? 아마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것이고, 스승의 부재와는 관계없이 나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돌을 던지고 떠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나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고, 내 생명의 무게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자리를 옮겨 찾은 곳은 꾸쉬나가르에 위치한 한국절인 대한사였지만 너무 이른 시간 탓인지 문은 열지 않았고, 석가탑과 닮은 탑 주변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듯 마당에 쌓여 있는 자재들만 담너머로 확인했다.

도보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리 분배 장소인 드로나 스뚜빠(Drona Stupa)와 부처님의 유해를 다비한 라마바르 스뚜빠(Ramabhar Stupa)가 있어 걸어서 가보았다.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후, 꾸쉬나가르의 말라(malla)족은 유해를 다비해서 사리를 수습했는데, 이 사리를 확보하기 위해 마가다국의 아잣따샤뜨루(Ajātasattru) 왕, 릿차비(Licchavi)족, 샤캬(śakya)족, 불리(Buli)족, 말라(Malla)족 빠와(Pāvā) 지파, 말라(Malla)족 꾸시나라(Kusinārā) 지파, 베타디빠(Vethadīpa)의 브라만 등 8개 부족들이 서로 물러서지 않아 긴장이 조성되면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다. 이때 바라문 드로나(Drona)가 중재에 나서 사리를 똑같이 8등분해서 나누어주었고, 사리를 분배받은 8개 부족은 각자의 영토에 8개의 사리탑을 조성했다. 여기에 중재자 드로나가 사리를 담았던 병을 모신 병탑(Kumbha Stupa),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삡파리바나(Pipphalivana)의 모리야(Moriyā)족이 다비한 재를 모신 재탑(Anagara Stupa)을 합쳐 총 10개의 근본 사리탑이 건립되었다.

드로나 스뚜빠는 동네 옆 골목길 안에 있으며, 대규모 유적이 남아 있는 열반 탑 구역과는 달리 커다란 보리수 아래 사리 분배를 기념하는 불상과 작은 신전이 있는 조용하고 호젓한 장소다. 이에 비해 라마바르 스뚜빠는 그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되어 있는데, 조용한 아침에 방문해서인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다비의 불이 크게 올라왔을 장면을 상상해보며 합장 삼배를 올릴 수 있었다.

일찍 서둘렀음에도 불구하고 케사리아 스뚜빠(Kesariya Stupa)에 도착한 것은 12시가 넘어서였다. 저 멀리 들판 위에 서 있는 탑은 그 규모가 대단했는데, 높이 31m, 둘레 약 425m로 세계 최대 규모의 불탑이라고 평가받는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을 향해 꾸쉬나가르로 가는 최후의 여정에 바이샬리의 릿차비(Licchavi)족들이 부처님을 차마 떠나보내지 못해 바이샬리에서 이곳까지 배웅을 왔다고 하는 장소에 세워진 불탑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들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가지고 있던 발우를 건네며 돌아가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이 발우를 모시기 위해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케사리아 스뚜빠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층위를 가지며 비정형적으로 쌓여 있는 것이 오히려 눈길을 끈다.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입체적 구조에 다각형의 기단이 테라스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확인은 할 수 없지만 각 테라스의 외벽에 수많은 감실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탑의 머리 부분은 대지진과 세월의 풍파로 인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서 다행스럽다.


케사리아 스뚜빠(필자 제공)


바이샬리 대스뚜빠와 아쇼카 석주(필자 제공)

바이샬리(Vaiśali)로 향하는 도로 주변의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를 마친 후 바이샬리 스뚜빠로 향했다. 케사리아에서 약 50km 거리로,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길이었다. 이런 거리를 당시 바이샬리 사람들은 부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하니 그 절실한 마음이 저절로 느껴졌다. 바이샬리에는 크게 두 가지 유적이 유명한데, 하나는 8개의 근본 사리탑 중 하나인 바이샬리 사리탑, 다른 하나는 아쇼카 석주 및 대스뚜빠 구역이다. 바이샬리 근본 사리탑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 않았다. 복발 부분은 현재 형태가 사라져 그 위를 원형의 보호각으로 덮어 보존하고 있다. 지름은 약 5m에 불과하니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탑은 흙과 진흙으로 다져서 세운 소박한 형태였으나 후대에 벽돌을 추가해 기단을 쌓아 올린 흔적이 보인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인도의 고고학자 A.S. 알테카르(A.S. Altekar)이 이끄는 발굴단에 의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담은 보석 장식의 작은 석제 사리용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뭐니 해도 바이샬리를 대표하는 유적은 완벽하게 보존된 아쇼카 석주이다. 상단의 사자상과 기둥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석주이다. 사자는 부처님 최후의 여정인 꾸쉬나가르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교단사적으로 보자면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 성립된 곳이기도 하고, 제2차 결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가 거주하며 재가불교의 정수를 실천한 장소도 이곳 바이샬리라고 한다. 이 거대한 유적 한가운데 서 있으면 비로소 성지 순례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다. 물론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은 아니지만 세월을 이겨내고 서 있는 석주의 존재가 제행무상의 원리 앞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진리임을 사자후로 크게 외치는 듯해서 감격스럽다.

어디선가 잔뜩 해온 용도 불명의 나뭇가지를 코끼리로 옮기는 청년이 도로를 점령하고, 뒤이어 낙타가 오토바이와 빨간 승용차의 길을 막아서는 바이샬리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 묘한 느낌이 든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갠지스강이 눈앞에 나타나며 이곳이 빠뜨나(Patna)임을 알린다. 강가 가트에서 시체를 화장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꽃상여를 어깨에 메고 길 옆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자주 눈에 띈다.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거꾸로 되짚어가는 이 길이 왠지 마음에 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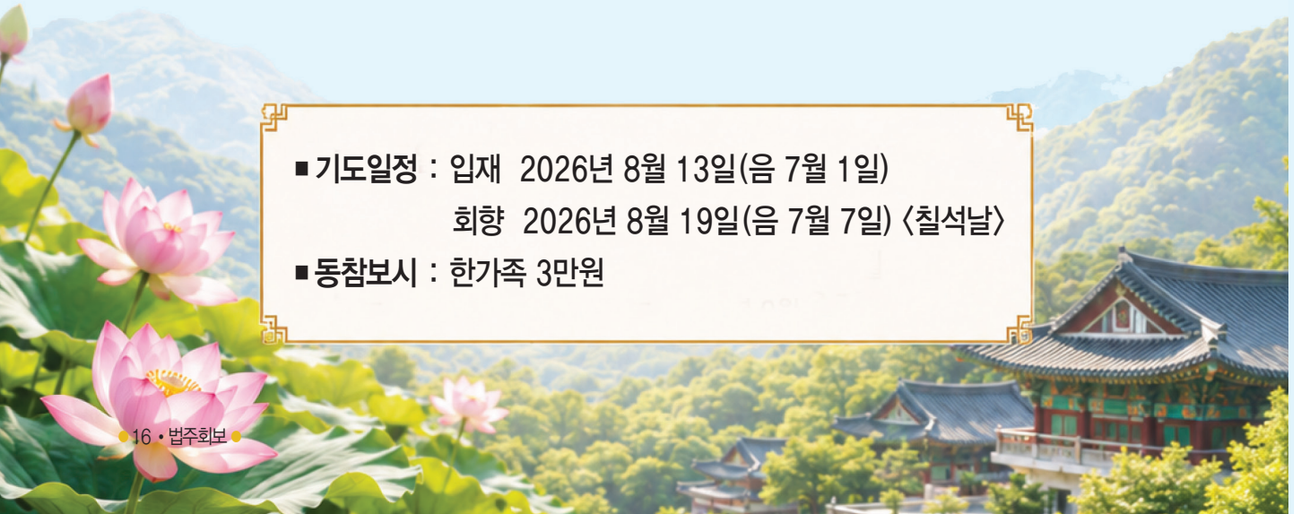


칠월칠석 기도안내

신도님의 가정에 부처님과 치성광여래불, 그리고 칠원성군님의
자비로운 가호와 가피가 늘 충만하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합니다.
칠월칠석은 매년 음력 7월 7일로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전설로 알려진 날로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이날을 맞아 인간의 수명과 복덕을 관장하시는
치성광여래불과 북두칠성의 화현이신 칠원성군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을
올려왔습니다. 칠석기도는 다음과 같은 간절한 소망을 성취하는 공덕이 있습니다.

자손창성 :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건강한 성장　**수명장수** : 부모님의 건강과 무병장수
인연성취 : 좋은 인연과의 만남 및 가정의 화목　**소구소망** : 가문의 번창과 재수대통

한 해의 중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이 귀한 날에,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 올리시어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한 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기도일정** : 입재　2026년 8월 13일(음 7월 1일)
　　회향　2026년 8월 19일(음 7월 7일) 〈칠석날〉
■ **동참보시** : 한가족 3만원

수능 100일 특별기도 안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쉼 없이 학업에 매진해 온 우리 주변의 수험생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해 大법주사에서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능 100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시험에 임하는 침착한 마음과 지치지 않는 건강,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와 지혜입니다.
이에 본사에서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우리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수능 100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 자녀를 위해 수능 100일 특별기도에
모두 동참하시어 마음을 모으는 정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입　　재** :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회　　향**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수능일〉
※ 수능 당일은 大법주사 모든 전각에서 수험생들을
　축원해주십시다.
■ **동참보시** : 수험생 1인 10만원

23·24·25년 3연속 최우수 템플스테이

속리산 大 법 주 사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 大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 저녁/새벽예불
-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 선명상 (1박2일, 2박3일)
- 수정봉 걷기 명상
- 스님과 차담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나한도량 성지순례 안내



나한도량 성지순례는 나한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각자의 서원을 발하여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거룩한 구법求法의 길입니다.
나한님의 영험한 가피를 입고 가정의 평안과 자손창성,
그리고 각자의 서원을 성취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3차 성지순례** – 하동 쌍계사 및 칠불사 (8월 28일 금요일 예정)
- 청주 2대 / 대전 1대 / 보은 1대(속리산 포함)
- 청주 보문심 010-5498-5546 / 환희주 010-9423-3858
  대전 자비심 010-9559-9223 / 보은(속리산)-원주실
- **동참보시** – 1인 5만원 (당일 승차 시 팀장님께)

2026. 8 大법주사 행사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6.19 광명진언기도
2 20	3 21	4 22	5 23	6 24 백중 4재 관음재일	7 입추 25	8 26
9 27	10 28	11 29	12 30 수능백일기도입재	13 7.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칠석기도입재 백중5재	14 말복 2	15 광복절 3 신중기도회향 다라니독송기도
16 4	17 대체공휴일 5 월탄대종사다례	18 6	19 칠석 7 칠석기도회향	20 8 약사재일 백중 6재	21 9	22 10
23 11 30 지장재일 18	24 12 31 19	25 13 월용큰스님다례	26 14	27 15 보름 하안거해제 우란분절(백중) 하안거백일기도회향	28 16 미륵재일	29 17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7시 30분, 8시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大법주사 소식







설봉스님특강 — 마을 어르신 건강기원 삼계탕 나눔행사







선진사찰탐방(종무원) — 백중입재






초하루기도 — 백중초재







나한도량 성지순례




백중2재




포교국장임명(혜총스님)


주지임명(반야사 덕원스님)


주지임명(청련암 각승스님)


주지임명(원통암 광익스님)


주지임명(고산사 석두스님)



광명진언기도 – 8월 1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릍타야 훔"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빛을 관상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깨닫는 진언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8월 13일 목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차량운행-보은/청주/대전지역〉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정성을 다해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간의 평안과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매월 새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고 복을 기원하는 신심의 발로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8월 15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중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륵재일기도 – 8월 28일 금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자비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용화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기도로 매월 음력 16일 봉행됩니다.



지장재일기도 – 8월 30일 일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차량운행-청주지역〉

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살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발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생일불공

더없이 귀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께 축원올리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문자 • 카톡 **010-6732-0133으**로 사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당일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 大법주사 기도 동참 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大法住寺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안내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무량한 공덕의 불사에 인연을 맺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법주사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륵전 내부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랫동안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와 발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부처님의 금빛 안색이 퇴색되고 도포가 마모되어
금번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형상을 새롭게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설삼세인과경》에 이르기를, "금생에 몸이 장엄하고 용모가
수려한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불상에 금을 입힌 공덕이요,
의복이 풍족하고 복록이 구족한 이는 부처님을 잘 공양한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금불사는 단순한 보수 작업이 아니라,
퇴색된 우리 마음을 닦아내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삶 속에서 발현되게 하는 가장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부처님 몸에 금 한 조각을 올리는 정성은 법계의 지극한 공덕이 되어,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선망조상, 그리고 후손만대에 이르기까지
무량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세생생 삼대의 가족이 공덕의 보탑을 쌓는 이 거룩한
인연에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수희 동참을 발원합니다.

동참기간 2026년 **6**월 부터 2027년 불사 원만 성취 시까지

불사동참 1인 1구좌 **10**만원 **동참계좌 : 우체국 120-0001-36241 법주사**

접수안내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승보공양은 가장 법다운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은 스님들께 존경과 공경을 실천하는 불교의 오랜 전통이며 복전을 일구는 선업입니다.
대법주사에서는 평생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신 교구스님께 병원비, 요양비, 수행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35분의 교구스님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소액일지라도 신심 깊은 불자님의 후원이 더해진다면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진하시는 스님들을 돕는 것은, 우리 불자들이 지녀야 할 큰 공덕이자
거룩한 책임입니다. 스님들께서 병고와 노후의 걱정 없이 수행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비로운 보시행인 승려복지 기금 후원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김수련 이시영 김순자 김창순 최규연 강혜숙 김규영 민혜숙 김명숙 김태홍 최성락 박근식
김완구 서현숙 이은자 연용덕 김영경 안미영 김태원 김범기 김부임 조선경 한순화 단양청련암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